

● 인성이 전투력이다 <6> 육군6군단의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영장만 챙겨 입대했는데 신분증과 나라사랑카드도 있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변 간부님의 배려로 휴대전화를 빌려 집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님께 연락해 신분증과 카드를 받은 덕분에 무사히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경 일병)

“한 달 전쯤 언 땅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대신 근무를 서주고 제 몫의 제설작업까지 해준 선임들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석명근 일병)



육군6군단 정보통신단 장병들이 지난 23일 오후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3단계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자대 복무 중 인성교육'에서 배려 사례 발표와 단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배려가 자양분... 인성교육 싹트다

지난 23일 오후 육군6군단 106정보통신단 761통신대대 1중대 4소대에는 배려의 꽃이 활짝 피었다. 소대원들이 입대 전과 후 자신이 받은 최고의 배려 혹은 자신이 실행한 배려를 발표하는 '내 인생 최고의 배려'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로의 발표를 들으며 병사들은 배려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말 한마디라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날 발표는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중 3단계인 '자대 복무 중 인성교육'에 따라 이뤄졌다. 대대는 아예 지난 한 주를 인성교육에 할애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병력 모두가 인성교육과 함께 지휘관 정신교육, 충효교육, 인권교육을 받고 부대 단결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성교육이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육군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인성함양교육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단 축선별 순회교육'에 참여했던 교관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한 첫 교육이었다는 점. 변화는 곳곳에서 느껴졌다.

우선 강의식 교육은 최소화했다. 1박2일간의 인성함양교육 중 강의는 4시간이 전부. 그 외에는 병사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화 스타일' 시간에는 병사들이 자신의 대화 유형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음의 근육 키우기' 시간에는 스트레스나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 '도덕 판단의 두 렌즈' 시간에는 장애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의 고마움을 깨닫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인식과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익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재미'였다. 지난해 인성함양교육에서 건조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갔다면 올해는 병사들이 흥미를 느끼고 전우들과 단결할 수 있는 활동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배려'처럼 진지한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종이로 탑 쌓기' 게임을 진행했다. 몇 장의 종이를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이기는 게

임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탑을 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오후의 나른함은 저만치 달아났다.

'똥똥 뭉친 우리 팀' 같은 별도의 게임 시간은 단결심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일조했다.

이한주(대위·학사56기) 1중대장은 "순회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지난해에는 교육 계획표와 해설집만 보고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 강의에 활기가 없었는데 순회교육에서 병사들이 할 게임과 발표를 직접 해 보니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특히 병사들이 지루해할 때 호응을 유도하는 노하우와 팁을 배운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차이는 병사들이 가장 먼저 느끼기 마련이다. 성원진(22) 상병과 박경민(22) 일병은 "프로그램도 알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었고 교육 과정에서 전우애가 돈독해졌다"면서 "기회가 되면 또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간에 한두 번 하는 일회성 인성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육군 표준프로그램과 함께 봉사활동, 재능기부, 독서 등 기회교육, '우리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등의 정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는 엄종철(중령·학군34기) 대대장은 "폭언 등으로 징계받는 장병들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것에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느끼는 만큼 우리 대대가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가영/사진=조종원 기자

순회교육 참여했던 전담교관들 '대화형 교육' 적용 첫 시간

자유로운 발표 분위기 속 '내 생애 최고의 배려'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헤아리고 종이 탑 쌓기 등 즐기며 전우애 다져

육군6군단의 또 다른 노력들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군인정신, 인성함양 첫걸음으로

육군6군단은 육군이 제시한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프로그램 중에서도 전입병 비전 설계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육군이 권장하는 수업시간에 7시간을 추가해 2박3일간 교육하는데 군과 인생의 선배이자 친근감 있는 교관을 편성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인성함양의 첫걸음으로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운명공동체인 군인은 전우애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상호존중과 배려가 있는 부대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이 필수라는 것. 또 군복은 나라를 지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명예'이며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우리 장병은 국가와 국민이 임명한 '국가대표'임을 알려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역병 미래설계교육도 육군의 표준 프로그램 개선에 따라 예비군 복무제도 소개와 취업, 생활경제에 관한 정보, 출산장려 정부시책을 추가해 교육하고 있다.

■ 편집=유현애 기자